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16호
2024.08.01.(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통상**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 선출
- 미국·에너지** 美,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43억 달러 보조금 발표
- 일본·자동차** 도요타 등 日 기업, 인니서 하이브리드 車 공세...세제 혜택 겨냥
- 독일·에너지** 獨, 중국産 풍력 터빈 첫 주문...역내 업계 우려 제기
- 중국·배터리** 中 배터리 산업, 수출 확대 통해 채산성 악화 방어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통상** 美 바이든 행정부,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 재차 강조

원자재 뉴스 PLUS

- 원자재** 中 안티모니,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

II.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음극재용 인조흑연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망 변화와 대응전략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통상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 선출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7.23), 위기대응네트워크(7.24), 노동권자문기구(7.30)가 모두 공식출범하여 본격적 이행단계에 돌입
 - 위기 발생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
- CRN은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시 긴급회의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간 공조 방안 모색(필요시 장관급 또는 정상급 격상 가능)
 - 회원국이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긴급회의 개최, 대체 공급선 확보·공동 조달·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평시에도 모의훈련 등 회원국 역량강화 활동 지원
- 7.24일 우리나라는 14개 회원국들 만장일치로 CRN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
 - 일본이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우리나라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
- CRN은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며, 우리나라 산업·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예정



핵심 키워드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4.07.30)

미국, 에너지 美,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43억 달러 보조금 발표

-  7.22일(현지시간) 美 환경보호청(EPA)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30개주 25개 프로젝트에 43억 달러(약 5조 9,5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발표
- ➡ 동 프로젝트 모집 기간에 3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하여 25개 프로젝트 선정
-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50년까지 약 9억 7,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250개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에 해당
- ➡ 주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5억 달러), 일리노이주(4억 3,000만 달러), 노스캐롤라이나주(4억 2,100만 달러), 펜실베이니아주(3억 9,600만 달러) 등에서 진행

핵심 키워드

온실가스 감축

보조금

출처: 美 환경보호청 보도자료('24.07.22),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54호('24.07.2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일본, 자동차 도요타 등 日 기업, 인니서 하이브리드 車 공세...세제 혜택 겨냥

-  7.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 등 日 자동차 제조사*는 세제 혜택을 겨냥해 인니에 하이브리드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 보도
- * '23년 日 기업 인니 신차 판매 시장점유율: (도요타) 33.5% / (다이하쓰) 18.7% / (혼다) 13.8% / (스즈키) 8.1% / (미쓰비시) 7.7%
- ➡ 인니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를 논의하는 등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 중이며, 日 기업은 이 점을 겨냥해 신차 출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분석
- ➡ 올 상반기 인니 신규 판매 차량 3만 8,000대 가운데 70%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따른 시장 과열로 日 기업의 전략이 주효할지 주목

핵심 키워드

전기차

세제 혜택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07.18), 일본 경제브리핑 27호('24.07.22)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독일, 에너지 獨, 중국産 풍력 터빈 첫 주문...역내 업계 우려 제기

현지언론은 지난 7.2일(현지시간) 獨 재생에너지 자산 운용사 룩스카라(Luxcara)가 獨 최초로 중국産 풍력 터빈*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

* 망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Mingyang Smart Energy Group)과 우선 공급 계약 체결

- ➡ EU 內 풍력 터빈은 유럽 업체가 공급해 왔으나, ▲유럽 경쟁사 수준 대비 50% 낮은 가격, ▲대금결제 후불 등 가격경쟁력을 갖춘 中 업체가 최근 유럽 시장에 진출
- ➡ 저렴한 중국産 태양광 패널로 많은 유럽 제조업체가 파산한 경험이 있어, EU 업계에서는 중국의 유럽 진출 장기화를 우려하는 상황
- ➡ 獨 내 협회 측은 중국 과잉 생산 물량의 역내 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獨 정부는 룩스카라의 동 결정에 대해 향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 언급

핵심 키워드

재생에너지

과잉공급

출처: Euractiv('24.07.20),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45호('24.07.24)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중국, 배터리 中 배터리 산업, 수출 확대 통해 채산성 악화 방어

7.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품 공급 확대로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中 업계는 에너지 저장형 배터리 수출 활로를 개척하여 이익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보도

- ➡ 全 세계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으로 中 배터리 수출이 크게 늘었으나 최근 생산기업들의 공급과잉에 따른 제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 수출실적은 악화
- ➡ 다만 에너지 저장형 배터리 수출 전략을 통해 '24.1~5월 中 에너지 저장형 배터리 수출량은 50.1%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동 기간 전기차 배터리 수출 증가율 2.9%를 크게 상회

주요국의 중국産 전기차·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中 업계는 당분간 에너지 저장형 배터리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 ➡ 또한 中 내수시장의 에너지 저장형 배터리 이익률은 8%를 하회하는 반면, 해외시장은 20%에 육박해 中 기업에 해외시장 진출이 큰 유인으로 작용

핵심 키워드

배터리

공급과잉

출처: 재경조찬(財經早餐)('24.07.19)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통상 美 바이든 행정부,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 재차 강조

- 7.24일(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Made in America) 팩트시트를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래 백악관 행정명령·메이드 인 아메리카 사무소 설립·바이 아메리칸 변경 시행 등 미국 내 제조·생산 재차 강조

메이드 인 아메리카 팩트시트 개요

개 요	- 국내 제조업 진흥 목적으로 기존 바이 아메리칸 면제 규정 중단 발표 - 인프라법·바이 아메리칸·반도체법·인플레이션 등 미국 내 제조 규정 전방위 확대
반도체법	- 미국 내 총 4,000억 달러(약 55조 2,700억 원)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창출 13개 반도체 제조사 대상 30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 및 250억 달러 대출 제공 예비 합의
광대역	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420억 달러 지원
항만 인프라	- 인프라법 및 IRA를 바탕으로 항구 크레인 생산 역량 재건 -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이상 美 항만 인프라 구축에 투자
고속철도	'28년 완공 목표로 35,000개 건설 분야 일자리와 1,000개 정규직 창출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경제 창출을 위한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전략 품목 대중 관세 부과 등 조치 발표
바이 아메리칸	- 바이 아메리칸 규정 갱신 추진 - 미국 내 제조 상품 가치 비중을 현행 55%에서 '24년 65%, '29년 75%로 강화

[참고] 바이 아메리칸 vs 바이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바이 아메리카 (Buy America)
법적 근거	연방법	연방 규정
적용 대상	연방정부가 직접 조달하는 재화	연방 재정을 지원받은 주정부·지방정부 주관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주요 내용	미국산 철강·제조품·건축자재 사용 의무	외국산 입찰가에 대한 불이익 부과
미국산 인정기준	(철강) 全 공정이 미국 내 발생 (제조품) 국내 제조 및 미국산 비중이 55% 이상 (건축자재) 全 공정이 미국 내 발생	(철강) 全 공정이 미국 내 발생 (제조품) 미국산 부품 비중이 55% 이상 (건축자재) 미국산 부품 비중이 55% 이상

[자료원] 무역협회

핵심 키워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출처: 백악관 보도자료('24.07.24),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55호('24.07.25)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자재 中 안티모니,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

☐ 中 안티모니*의 가격은 6월 말부터 톤당 16만 위안 수준을 유지하며 작년 말 대비 94% 상승

* 안티모니(Antimony): 연축전자·통신설비·방염제 등에 주로 사용되며 중국·남아공·볼리비아 등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 中 정부의 환경 규제에 따른 일부 공장의 생산 중단,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감소, 다운스트림 부문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가격 상승세 견인

출처: 화하시보(华夏时报)(‘24.07.23)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4주)

비철금속 | 美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동 가격↓, 재고량 증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7.3주	7.4주	전주비(%)
동	8,478	9,097	7.3	9,467	9,027	△4.6
니켈	21,474	17,506	△18.5	16,307	15,657	△4.0
아연	2,647	2,641	△0.2	2,808	2,632	△6.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7월 4주 美 달러 인덱스는 104.10으로 전주대비 0.24p 상승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 재고량 증가로 전기동 가격 하방압력 발생

☐ (니켈) 인니 정·제련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거래소 재고량이 증가하며 가격 하락세 시현
☞ 다만 중국의 6월 니켈 매트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하는 등 中 수입 증가로 상기 하락세 부분 상쇄

철강 | 中 경기 부진으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7.3주	7.4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1.96	△23.9	138.40	138.76	0.3
원료탄	295.71	276.14	△6.6	232.40	223.20	△4.0
철광석	119.32	118.42	△0.8	106.55	101.12	△5.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주요 생산기업 Fortescue社 등의 생산 실적이 개선되며 철광석 가격 하방압력 발생

☐ (유연탄) 계절성 수요확대에 따른 유연탄 가격 소폭 상승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4주)

희소금속 | 제안가 하락으로 인한 페로망간 가격↓, 원료 비용 상승에 따른 네오디뮴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6월	전년비(%)	7.3주	7.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03	△4.9	1,310	1,260	△3.8
탄산리튬	35,697	14,331	△59.9	11,889	11,743	△1.2
수산화리튬	37,972	12,963	△65.9	11,174	11,056	△1.1
코발트 (U\$/lb)	17.82	16.90	△5.2	16.55	16.5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3,725	△17.1	233,700	230,300	△1.5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242	△30.8	50,700	50,920	0.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페로망간) 中 페로망간 가격은 공급업체가 재고를 줄이기 위해 제안가를 낮추며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시장은 여름철 수요둔화로 가격 하락세가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희토류) 산화 네오디뮴은 거래 활동 증가와 원료 비용 상승으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

에너지 |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 및 모건스탠리 유가 하락 전망 등으로 원유 가격↓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7.3주	7.4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3.41	1.31	84.29	81.41	△2.88
브렌트유	82.17	83.54	1.37	84.28	81.87	△2.41
WTI	77.60	79.10	1.51	81.69	78.15	△3.54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 ▲모건스탠리 유가 하락 전망 등으로 유가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美 원유 재고 감소 및 캐나다 석유 공급 차질 등은 유가 하락폭 제한

 S&P Global이 발표한 美·EU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각각 49.5, 45.6으로 '23.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모건스탠리는 '25년 브렌트유 가격이 OPEC+ 증산으로 70달러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월간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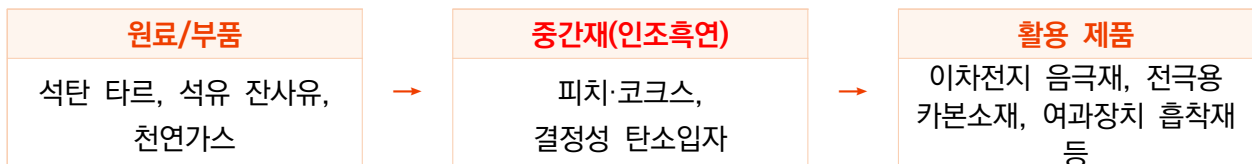
◆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음극재용 인조흑연

📌 인조흑연 품목 개요

- ▶ 인조흑연은 석유 및 석탄계 부산물로 제조된 코크스(Cokes)를 2,8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를 통해 흑연화시킨 탄소 결정체로 철강,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산업에 걸쳐 널리 사용 중
- ▶ 높은 열·전기전도성, 고온 안정성 등으로 천연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보다 급속충전에 유리하고 수명이 높지만, 제조원가가 비싸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 전기차, IT,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 발달 및 인조흑연 소재 시장도 급속히 성장 중이며, 전지 성능 개선을 위해 인조흑연 및 실리콘을 사용한 음극활물질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

📌 인조흑연 가치사슬

[표 1] 인조흑연 가치사슬



📌 인조흑연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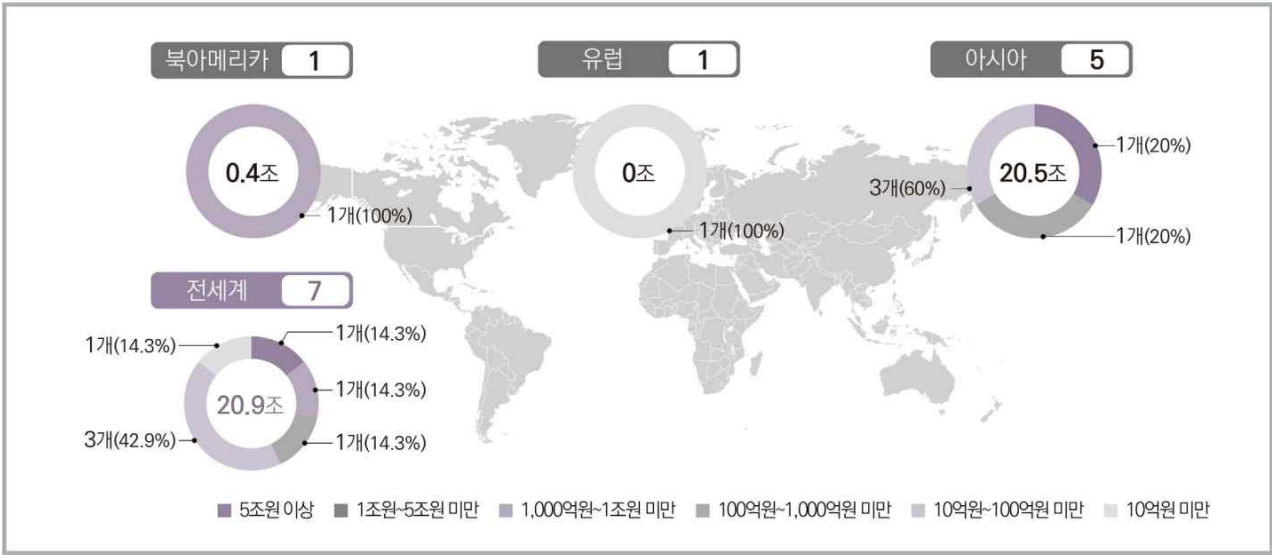
- ▶ 흑연은 터키, 중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으나, 채굴된 광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 ▶ 전 세계 생산량 중 인조흑연 96%, 천연(구상)흑연 99%가 중국에서 가공 중이며, 중국은 광산을 보유해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 ▶ '23년 기준 한국은 천연흑연의 97.2%, 인조흑연의 95.3%를 중국에서 수입 중
- ▶ '22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및 '25년 해외우려기업(FEOC) 요건 시행에 따라 배터리 생산업체는 FEOC 해당 기업들로부터 공급망 자립화가 시급한 상황
 - ▶ FEOC로 규정된 국가의 기업, 단체, 기관의 핵심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시, 보조금 혜택 지원 불가 (단, 흑연은 한시적으로 '26년까지 적용 유예)

인조흑연 기업 동향

	국내	국외
기업명	A사	(中) BTR
	B사	(中) Shanshan
	(원료) C사	(日) Hitachi chemical

-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은 중국계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BTR, Shanshan, Zichen 3개사가 점유율 1~3위를 기록 중. 중국 외 기업으로는 일본의 Hitachi, Mitsubishi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A사가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 생산 중
- A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조흑연 전구체를 생산 중이며, 자회사인 C사로부터 원료인 침상 코크스를 공급받아 원료부터 최종재 생산까지의 밸류체인 내재화 실현
 - A사는 국내에 8만 톤 규모의 천연 및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라인 및 5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 설비 구축 중
- B사는 미국의 G사와 합작하여 美 배터리 생산법인을 출범, G사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 중이며 A사는 합작회사에 배터리 제조용 인조흑연 음극재를 공급
- 또한 B사는 호주의 음극재 전문기업 N사와 협력관계를 구축, 인조흑연 공동개발 추진 중

[표 4] 인조흑연 주요 생산기업 현황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인조흑연 기술 동향

- ▶ 천연흑연의 사용량 대체를 위해 인조흑연 및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인조흑연은 천연흑연에 비해 고효율·장수명을 보여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조 기술 개발 필요. 현재는 흑연 제조 시 환경문제 및 막대한 전력 소모로 인해 국내에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편. 천연흑연과 혼용하는 차원에서 인조흑연의 사용 비중 증가
- ▶ 실리콘은 흑연 대비 용량이 3배 높으나 충·방전 시 부풀어오름 이슈가 존재하여 현재 흑연 음극재에 일부 첨가제 형태로 적용 중. 실리콘 입자를 작게 만들거나 탄소층 나노코팅 등 다양한 기술개발 시도 중

출처 및 참고자료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 품목 수출입 현황
- ▶ KEIT 이슈리뷰 2024-5월호 5. 양극/음극 원료 및 소재에 대한 공급망 이슈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국산화 전략품목 상세분석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4~2026
- ▶ 언론보도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공급망 더 알아보기

◆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망 변화와 대응전략

작성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미세 공정을 통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방점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미치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최근 중국이 레거시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향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 우려 속에 미국은 대중국 제재 범위를 레거시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EU에서도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레거시 반도체의 정의 및 중요성

- ⑤ (레거시 반도체 정의) 통상 28 나노미터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 대조되는 구형의 범용 반도체를 가리키며 자동차,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됨
- ⑤ (레거시 반도체 중요성 부상)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 방점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레거시 반도체의 중요성이 대두
 - ▶ (공급망 안정) 팬데믹 당시 레거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인도가 크게 지연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 큰 차질을 일으키는 등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강조됨
 - ▶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전력 반도체 등의 레거시 반도체는 미사일, 레이더 등 필수 군사장비에 광범위하게 투입되어 있어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
 - ▶ (반도체 기업의 수익 기반) 레거시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수익 기반 중 하나임

📖 미-중 레거시 반도체 경쟁 양상

- ⑤ (美, 대중국 첨단 반도체 제재)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초기 반도체 제재는 첨단 반도체에 국한
 - ▶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ASML社의 EUV(극자외선) 노광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19.11월) 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투명해짐
 - ▶ 미국 상무부는 중국군과의 연계를 이유로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인 SMIC를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하였으며, 10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제한('20.12월)
 - ▶ 미국 상무부는 '22.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칩 등의 첨단 반도체와 16·14 나노 이하의 로직칩 생산 장비 및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
- ⑤ (中, 레거시 반도체 확장 전략)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서 첨단 분야 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장

- **(미국의 레거시 제재 움직임)**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레거시 분야까지 대중국 규제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
 - ▶ '24.1월 美 상무부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덤핑을 지적하며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련 공급망 조사를 개시
 - ▶ 미국 정부는 중국에 집중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24.4월)

📌 주요국 레거시 반도체 투자 현황

- **(중국)**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레거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전략 확대
 - ▶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27년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설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1/3에 달할 전망 (Gartner, TrendForce)
- **(미국)** 자국 내 설비 확충을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에 근거하여 레거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 인텔, TSMC,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BAE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 등 레거시 반도체 기업에도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며 레거시 분야도 간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 **(일본)** 국적과 첨단·범용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1/3까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레거시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기반 구축
 - ▶ TSMC 1공장은 범용 반도체, 대만의 PSMC는 자동차용 반도체, 도시바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으로, 레거시 분야에서 다수의 생산기반 확보
- **(EU)** 'EU 반도체법'을 발효하여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동차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
 - ▶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이 독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과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향후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우려됨
-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달리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개별 기업 차원의 설비확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업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레거시 반도체 육성 및 안정적인 해외 조달선 확보 등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

출처: KITA 통상리포트 미-중 전략경쟁,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되나? ('24.07.11)

글로벌 경제지표 ['24.7.30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7/26	7/29	7/30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1.50	1,385.80	1,381.90	1,385.30	0.25%	7.55%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83.20	1,383.40	1,382.80	△0.04%	7.46%
₩/CNY	181.44	181.37	185.10	190.85	191.10	190.17	△0.49%	4.85%
₩/¥100	945.56	912.25	888.91	901.86	901.38	894.26	△0.79%	△1.97%
¥/U\$	133.73	141.19	149.79	153.66	153.31	154.91	1.04%	9.72%
U\$/EUR€	1.0617	1.1105	1.0835	1.0852	1.0858	1.0823	△0.32%	△2.54%
CNY/U\$	6.9630	7.1092	7.1938	7.2500	7.2542	7.2622	0.11%	2.15%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5.3원, (₩/¥100) 886.2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7/22	7/23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9.81	78.96	△0.9	8.6	1.9
					△1.1%	12.3%	2.4%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1.45	99.00	△2.5	1.7	△41.5
					△2.4%	1.7%	△29.5%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906.00	△97.0	996.5	333.0
					△1.1%	12.8%	3.9%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203.50	△42.0	93.0	△174.0
					△1.9%	4.5%	△7.5%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5,585.00	115.0	△185.0	△600.0
					0.7%	△1.2%	△3.7%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7/25	7/26	7/29	7월(~2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2.00	2.00	1.99	1.97
(%, YoY)	29.9%	△23.0%	△14.8%	△3.6%	6.6%	35.2%	35.1%	34.9%	32.3%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1	6.31	6.31	6.32
(%, YoY)	14.7%	10.7%	△2.3%	△1.9%	△0.7%	0.0%	0.0%	0.0%	0.2%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7/12	7/19	7/26	전주비(7/19)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3674.86	3542.44	3447.87	△2.7%	95.9%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7/25	7/26	7/29	7/30	전주비(7/29)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834	1808	1797	1762	△1.9%	△15.9%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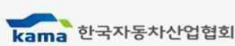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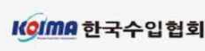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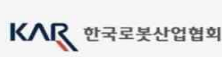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